

2024년 한국 청년의 삶과 마음, 그리고 행복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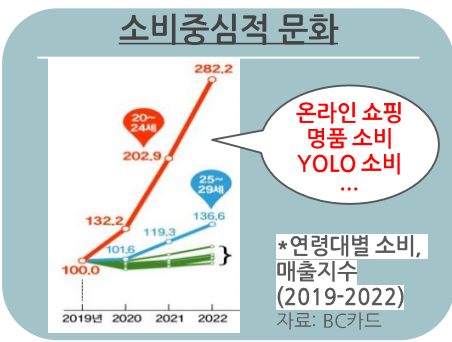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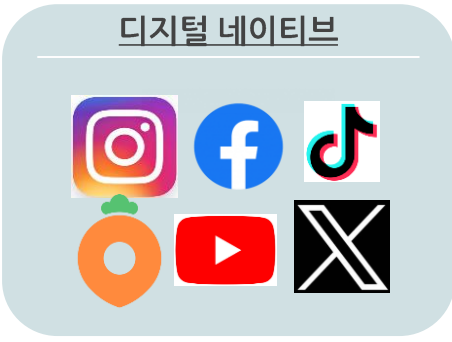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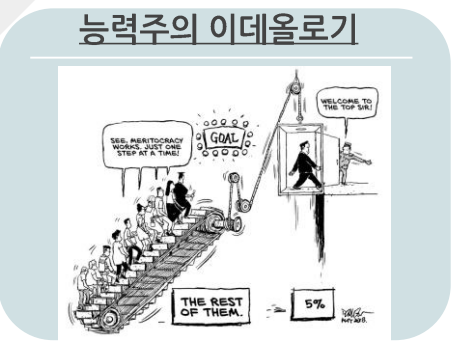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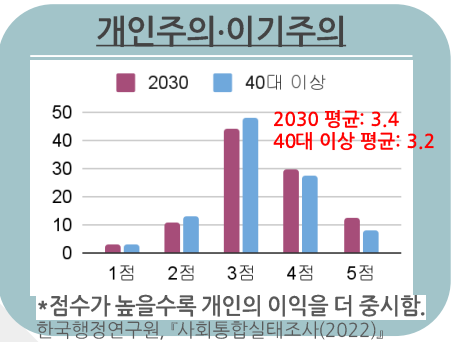
- 01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 02 청년들,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체념
- 04 절망이 만든 은둔과 우울
- 05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 06 나가며

00 들어가며

청년세대를 그리는 고정된 이미지들

MZ세대?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울러 지칭하는 신조어로서, 주로 1980년대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를 이른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20대와 30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이전세대로는 X세대, 그 이후 세대로는 알파세대가 주로 언급되곤 한다



위계질서, 경직된 조직문화 거부

- 연차 이유 밝히지 않았으면
- 상급자 식사 시 동행 안 해
- 젊은 직원만 차출은 불합리

*사라졌으면 하는 관행에 대한 신규공무원들의 의견
서울시, 「직원동행 프로젝트(2023)」

확실한 자기표현·자기주장

- 소비를 통해 자기 가치 실현
- SNS로 자기 생각을 표현
- 즐거이는 일에 투자, 재미 추구
- 취향을 공유하 면서도 서로 존중

*빅테크·핀테크 CEO들이 꼽은 MZ세대 핵심 특징
헤럴드경제, 「MZ세대 금융생활 설문조사(2022)」 3

다중 격차 형성의 조건과 미래세대

Individual Level

원자화와 다발성

Societal Level

불평등과 양극화

National Level

인구축소와 저성장

Global Level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

Planetary Level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Turbulence
of Life

Fragmented Battlefield

젠더

계층

세대

지역

Conflict

Divide

다층적 변화 압력

갈등과 균열의 전선들

뉴노말의 미래세대

0 들어가며

다중격차 앞에선 미래세대

-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 존재하게 될 사람들로, 현재의 아이들부터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Edward Page 2007)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되 **현재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등장할 미래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세대 간 ‘정의’의 원칙이 미래세대 개념의 핵심



미래세대와 청년은, 배제되고 소외되며 잊히기까지 하면서 **이전 세대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미래세대 청년에게 가해지는 ‘다층적인 변화 압력’과 그 결과로서의 ‘갈등·균열 전선’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00 들어가며: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뼈뺌하게 바라보기

- 인구구조 변화와 당면한 문제?
- 청년 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
- 현재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의 인구구조와 청년 문제?
-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방소멸?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 인구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
- 이주?

오피니언 > 동아광장

[동아광장/김석호] 인구학에 길을 묻다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들 늘어나는데... 인구학의 '생산가능인구' 맞지 않아
경제 맞치는 건 인구절벽 아닌 정치... 공포 조장하면 더 중요한 현실 오도
공정-공평한 기회 제공이 우선돼야

국회에서 벌어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당 간 전투와 비교하면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실 선거법 개정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한 표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다.



김석호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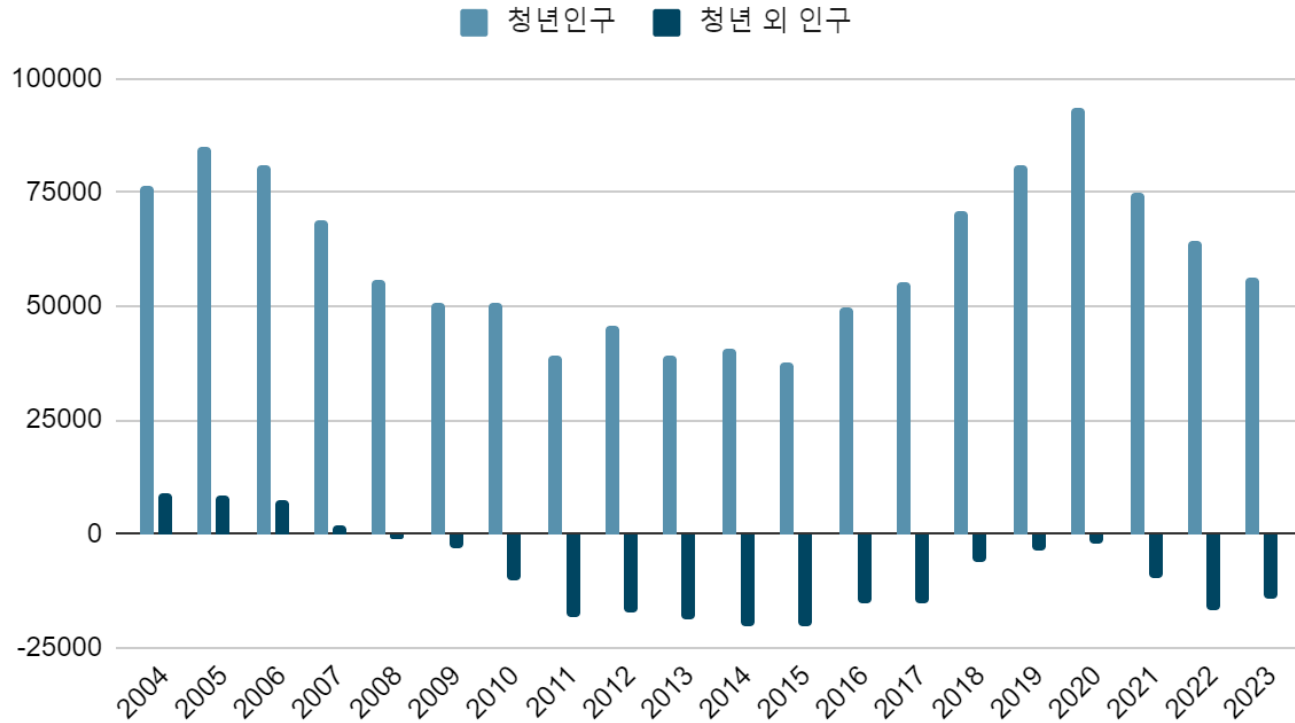
인구학자들은 인구절벽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기라고 주장한다. 가장 활기차게 일할 15~64세가 줄고 가족 부양과 자식 교육에 돈을 다 써버린 65세 이상의 노인이 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느끼는 소비의 기쁨은 소수의 특권이 되어 간다고 한다. 지방 소재 대학은 문을 닫았으며,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보다 교사의 수가 더 많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하니 좋은 일자리도 증발 중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빈집이 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다. 노후생활의 심리적 버팀목이던 국민연금도 붕괴 위기에 있다. 인구 2만 명을 못 지킨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의 근거를 잃어 간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온통 잿빛이다.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오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이기주의가 삶의 원칙이 되는 각자도생의 정글이 될 판이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에서 요지부동이다.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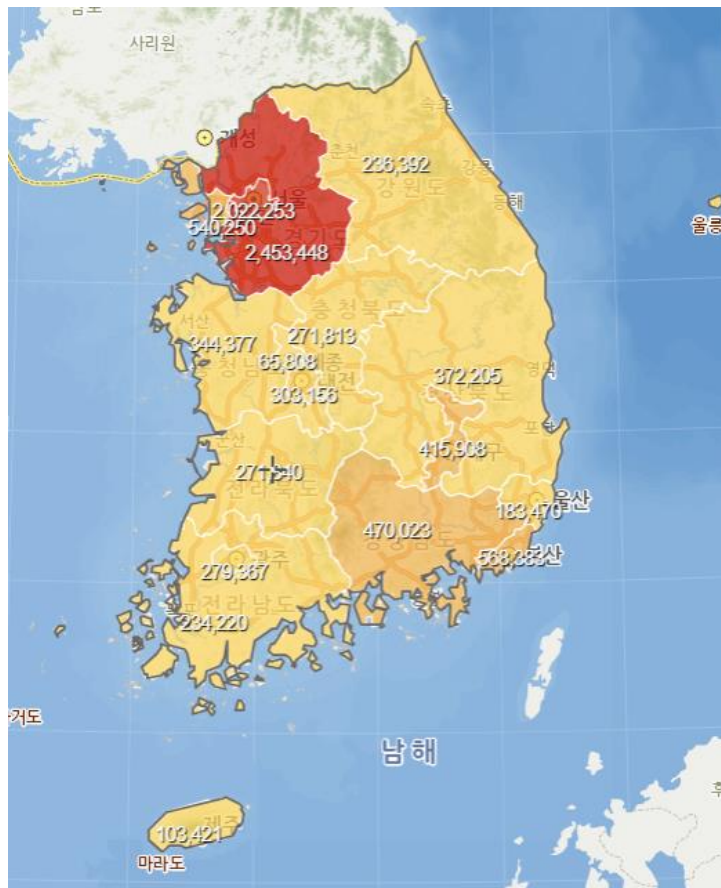
01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순이동인구 통계



01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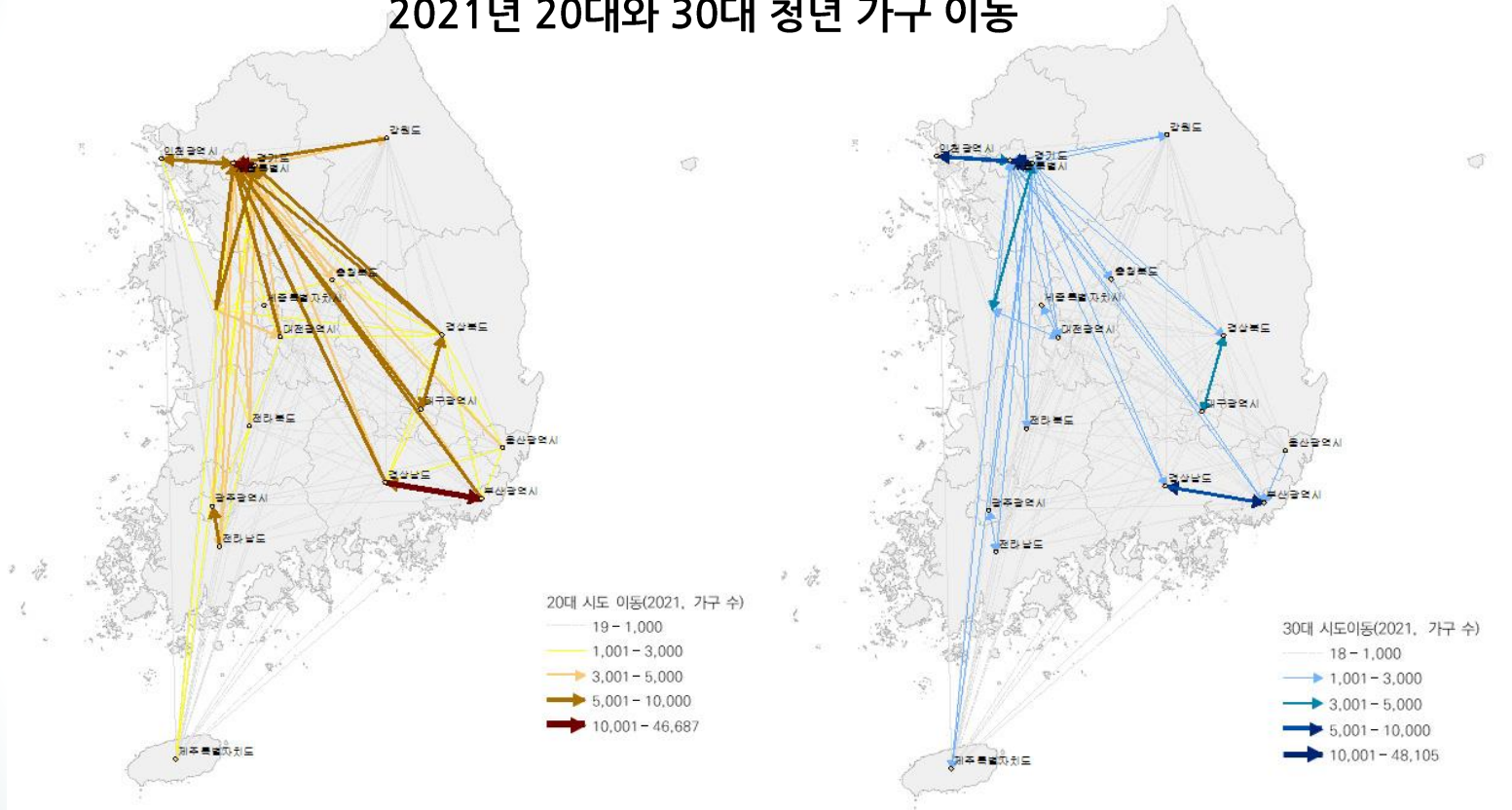
청년 인구 분포 현황



2022년
20-34세 청년
인구 분포 지도

01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2021년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1)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에서 인용. 20-39세.

01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2020년 인구구조 분포



시군구 단위의 성별·연령별 인구수 토대의 20년간의 지역 인구구조 변화

2000년, '대도시형'(25.5%), '구도시형'(43.0%), '신도시형'(18.2%), '농촌형'(13.6%)

2020년, '인구유지형'(28.7%), '청년유입형'(47.1%), '중년유출형'(19.3%), '청중년유출형'(4.9%)



- 인구유지형
- 청년유입형
- 중년유출형
- 청·중년유출형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각 연도.

청년들,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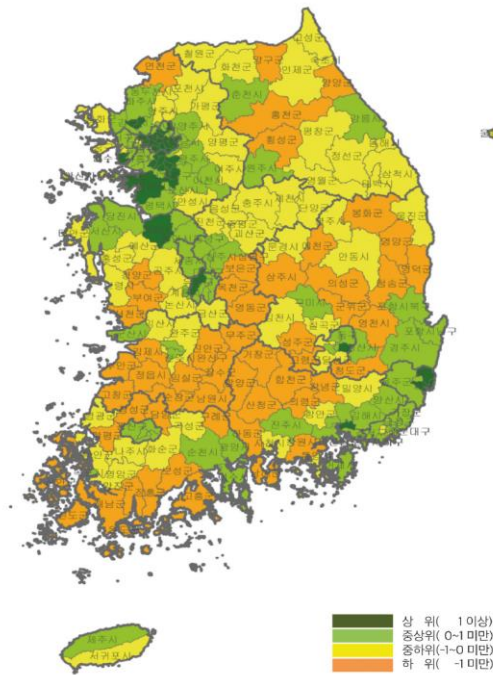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리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데 비해, 수도권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산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고속런 청년층,
수도권으로 집중**

자료: 이상호,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 고용동향브리프 2019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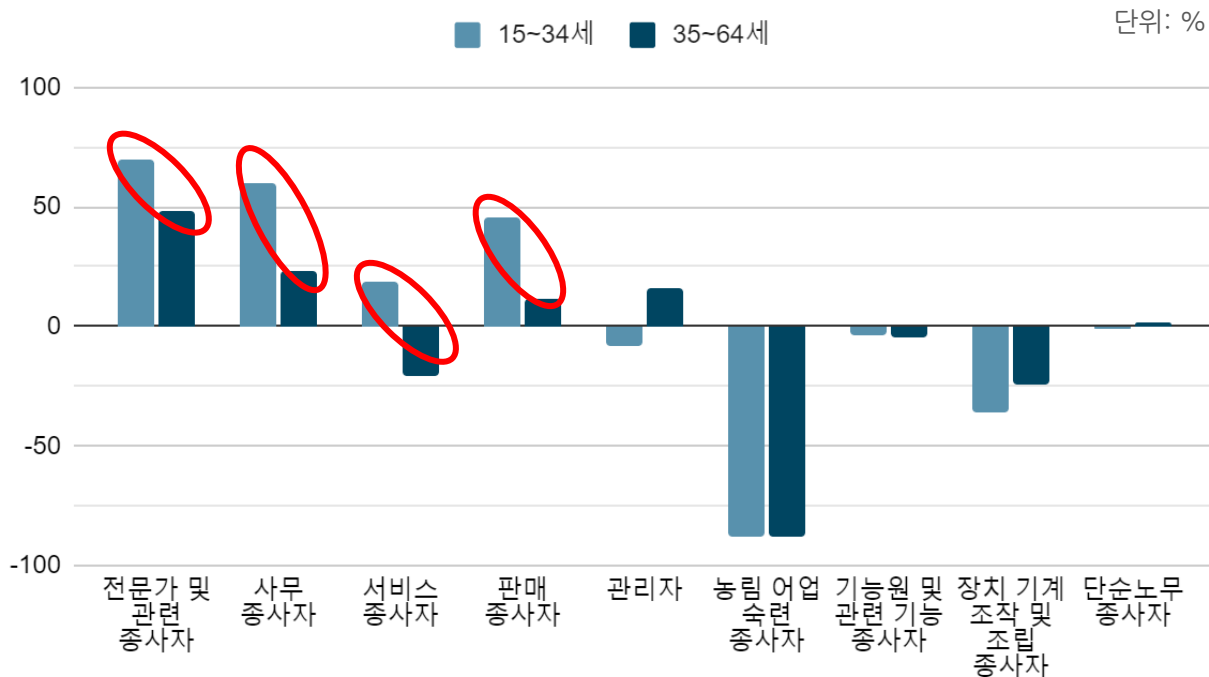


시군구별 일자리 질 지수 분포 (2015)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리다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직종별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특히 15-34세에서 크게 나타남

(강동우, 2023)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수도권\ 취업자\ 수 \div\ 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 100$ 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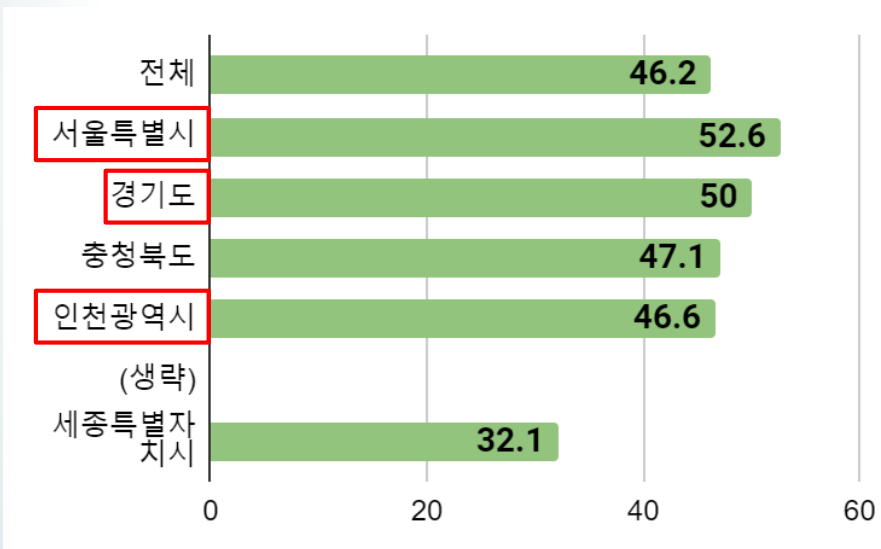
주: %값이 높을수록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 취업자 수에 비해 많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20) - 강동우(2023)를 참고하여 재구성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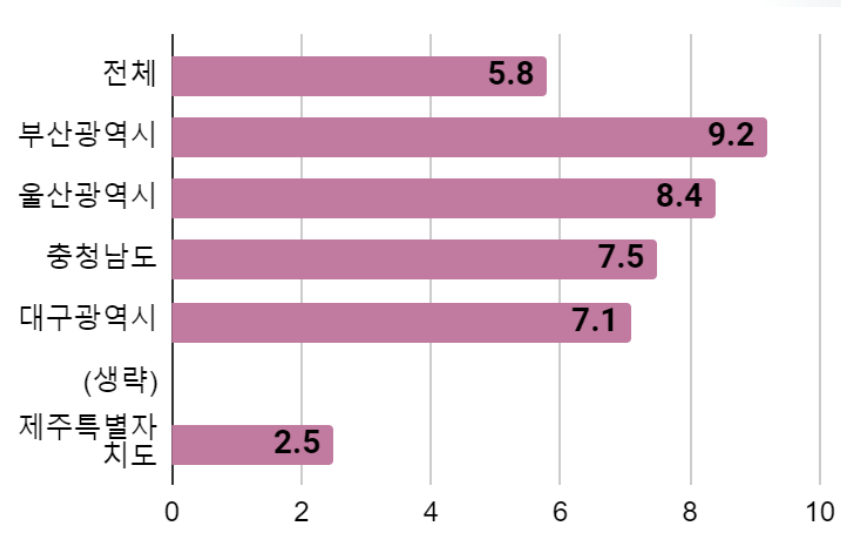
고용·취업의 격차

2023년 4분기 지역별 청년고용률



→ 고용률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은 상위권에 분포함.

2023년 4분기 지역별 청년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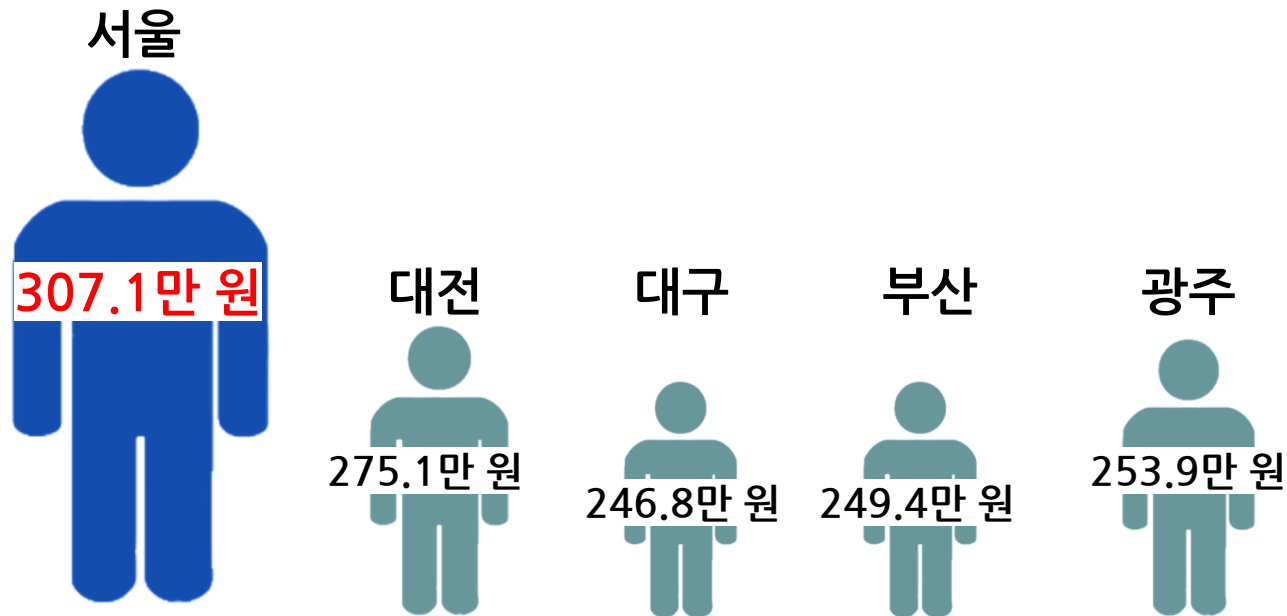


→ 실업률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주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 광역시들이 상위권에 분포함.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임금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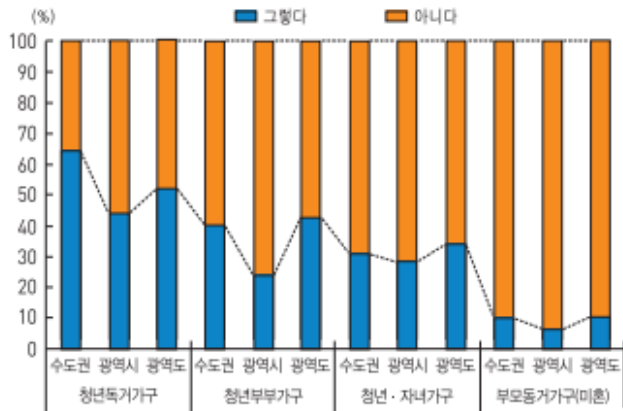
지역별 월평균 임금(2022)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리다

학업 또는 일자리 이유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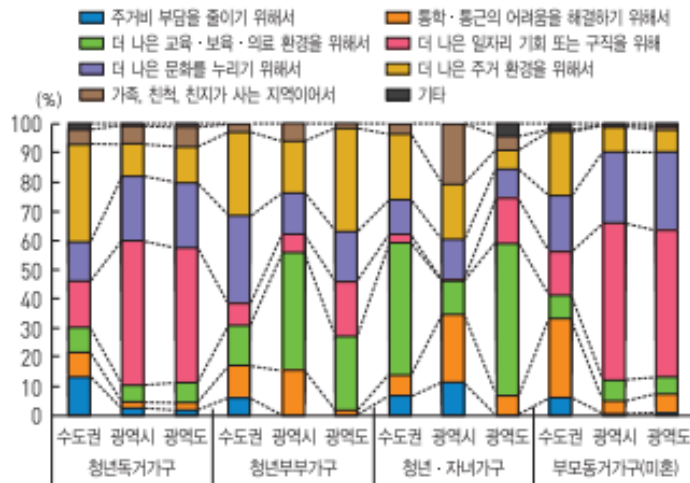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 해 오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이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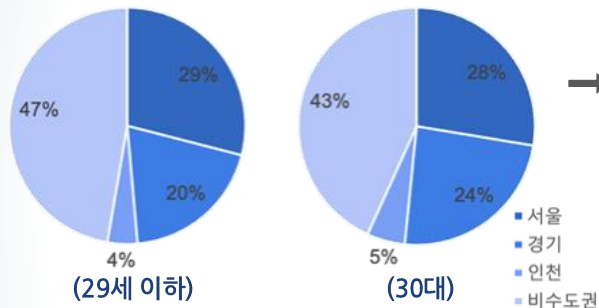
3) 통계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 미래를 위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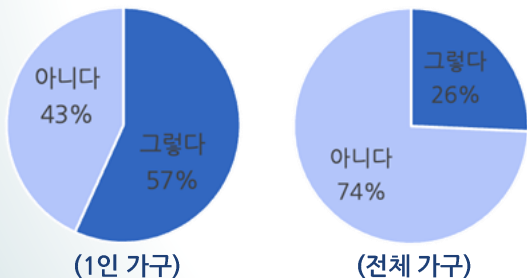
1인 가구 지역별 분포



청년 1인 가구 중
29세 이하는 53%,
30대는 57%가
수도권에 밀집

-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업 또는 일자리와 같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답함
- 또한, 1인 가구 청년 중 역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즉, 양질의 학업 또는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청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 유추 가능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학업 또는 일자리 때문에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
했다는 비율은 전체에서는
26%에 그치나, 1인가구
의 경우에는 그 두 배가 넘
는 57%에 달함

가족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주거
문화를 형성

1인
가구
청년

학업·취직 등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해 선택한
주거 형태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존재하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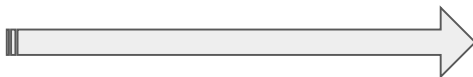
경향신문 기획, <지방 소녀들은 어디로>

‘청년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나’, ‘떠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왜 수도권이며 왜 돌아가지 않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릉과 고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65명의 여성들 인터뷰 조사.



지방 청년

교육기관
인턴 기회
...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

⋮

긴 이동시간
수도권 주거비 부담
...

노동시장
진입의 격차

“강릉에 있었다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산 운용사는 서울에 몰려있고 다른 금융기업의 지방 영업점들은 인턴을 뽑지 않거든요.”

“제가 차 안에 있던 그 시간에 서울 친구들은 연습을 더 하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확실히 그 친구들이 취업도 빨리 했고요.”

02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정주 여건과 성장의 기회 역시도 서울로

- 청년에게 정주여건은 주거, 문화·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및 성장가능성 등을 포괄. 즉, 청년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데는, 총체적인 **삶의 질**이 고려 대상 (조성철 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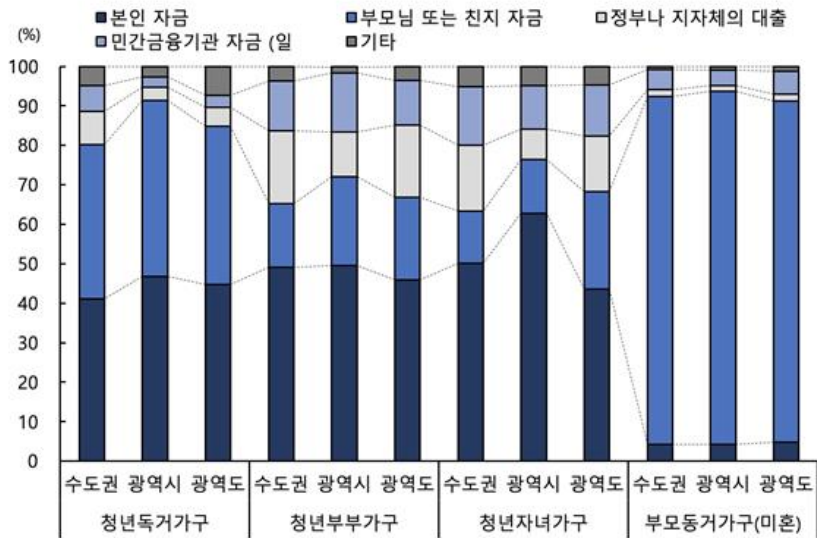
“친구 중 하나가 같은 그룹사 중 지방에 있는 화학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화학사는 연봉이 서울에 있는 그룹사에 비해 상당히 많고, 주거 지원도 된다. 생활비도 매우 싸다. 그러나 그 친구는 서울로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봉 등 경제적인 것은 지방에 근무하면 더 높을 수 있으나 **그렇게 모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기회나 시설이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왜 지방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지방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에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나 시설이 없으며,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다. 그 동료의 말에 따르면 지방에 있으면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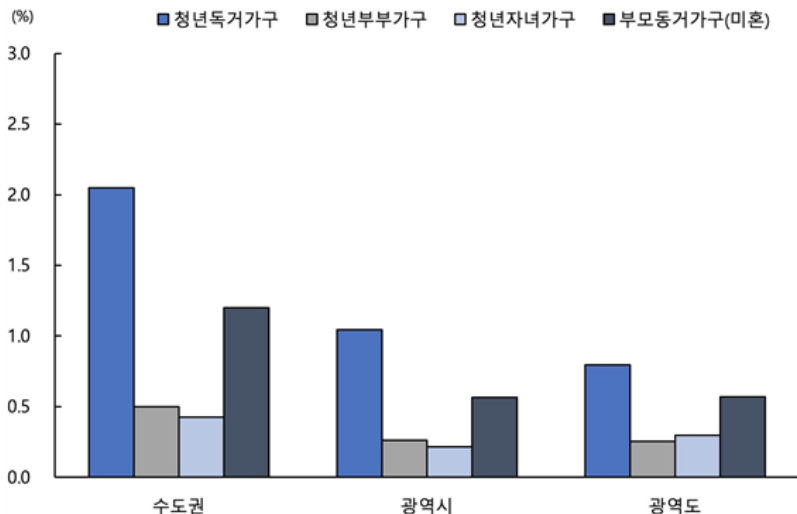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주거 비용 부담의 문제

주거자금 부담자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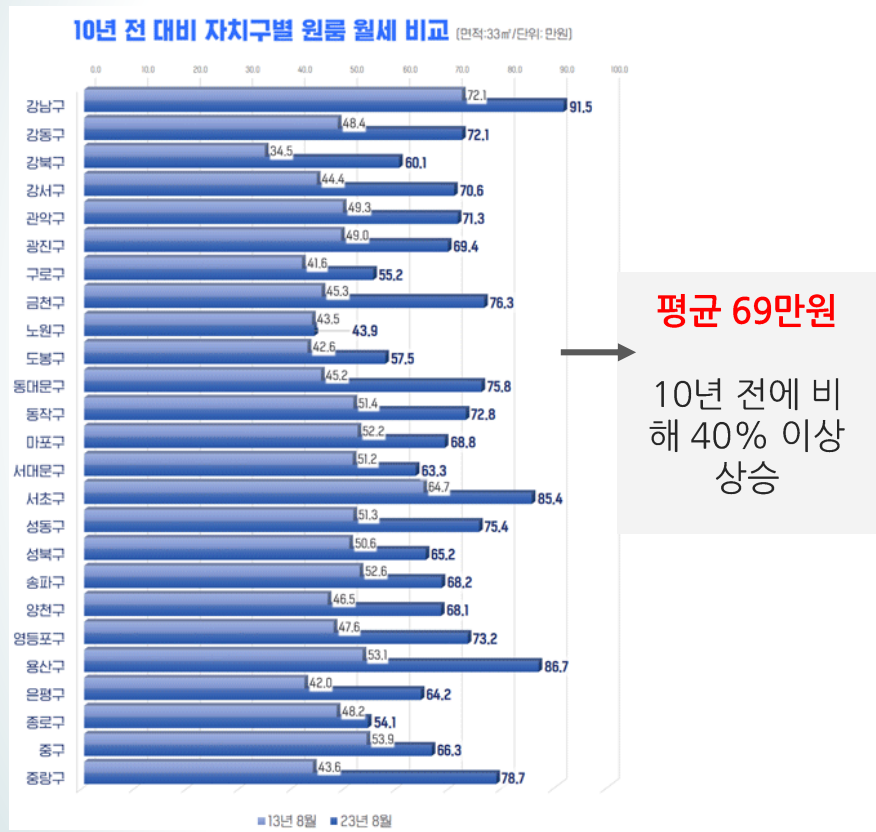
주거불안 경험,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 인용)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월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등 주거불안 상황을 1개 이상 경험한 응답 비율임.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청년 개인 월평균 소득

구분		평균금액(만 원)
전체		180
성별	남자	192
	여자	167
연령	19-24세	77
	25-29세	209
	30-34세	266
지역	수도권	188
	비수도권	172

전체 월평균 소득의 **약 38.3%**, 19-24세의 경우엔 **약 89.6%에 육박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스테이션3(다방 플랫폼)에서 인용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23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열악한 주거의 질



- 비좁은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카페 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찾음
- 근처에 24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유무가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 주거지가 온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



- 안정적인 수입을 아직 벌지 못하는 청년들(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비 부담이 낮고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형태로 몰리게 됨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학 기숙사 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부딪히기도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노동 · 일자리 격차와 노동의 불안정성

● 청년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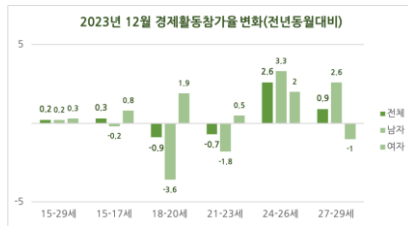
-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1-26세까지는 참가율이 감소하고 27-29세에서 2.6%p로 가장 많이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남
-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24세까지는 여성의 증가율이 높지만, 26세 이후로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 전체 실업률에 비해 15-19세, 20-29세의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음. 20대까지 여성 실업률이 더 높음. =

● 일자리의 종류와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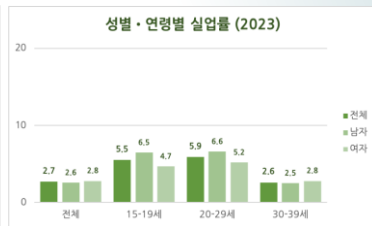
- 수도권에는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종사자가, 비수도권에는 전문가 및 관련 노동자, 장치 · 기계 조립 종사자 등의 비중 높음.
-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질을 분석했을 때, 저학력,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열악함. 성별, 학력별,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크게 발생. (황광훈 · 홍석현, 2021)

● 일자리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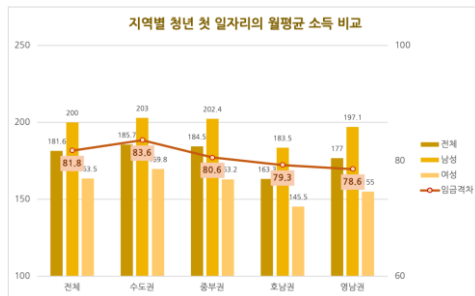
-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
-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불안정성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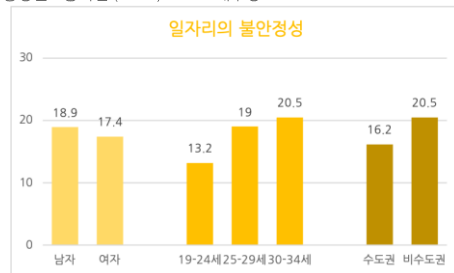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년 12월 청년층 고용동향 보도자료(20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황광훈 · 홍석현 (2021) 표 4-1 재구성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청년 노동시장 이행과 이중노동시장

● 이중노동시장

고임금, 고용안정, 복지 혜택 등의 특성을 가진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의 특성을 가진 2차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두 시장 간 이동성이 제한되는 구조.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이 대표적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 노동시장 분절의 심화

2차 노동시장에 첫 취업을 하면 이후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낮고, 진입하더라도 1차 노동시장에 첫 취업한 청년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음 (안주엽 외 2019; 이성희 외 2022)

● 청년들의 대응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며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 특정 직종(대기업·공공부문 등), 대기업, 수도권 지역이라는 확실적인 목표에 쏠림 현상 나타남. 그러나 소수만 진입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거나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으로 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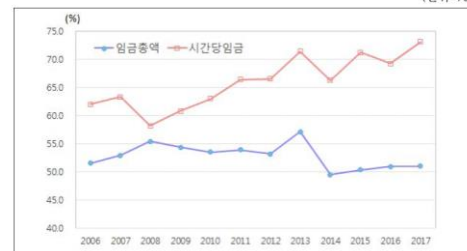
● 노동 이행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삶의 전반적인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낳음

포스코·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 기소 (2022); 인천국제 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 (20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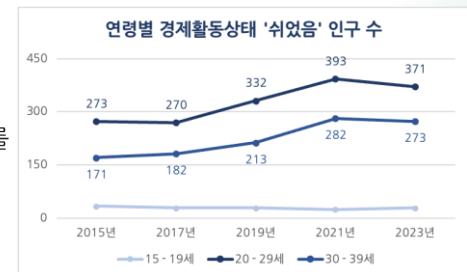
청년의 노동 논의에서 대학 졸업 후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수도권 청년을 떠올리기 쉬우나, 노동 시장의 분절에 따라 이들의 취업, 노동, 이직 등의 경험이 상이함. 또한 첫 직장의 차이가 이후 삶의 궤적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진병유(2018);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노동과 삶에 대한 청년 세대의 가치관

● 일을 통한 자아실현 VS 근무여건 (근무요건, 돈,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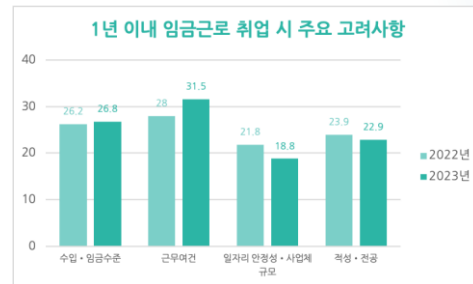
- 1년 이내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취업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2위가 근무여건(31.5%)과 돈(26.8%). 이전까지 적성 및 전공이 주요한 요인이었으나 2019년부터 순위가 바뀜.
- 일자리는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가치관에서, 노동은 퇴근 이후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가치관이 늘어나고 있음. 후자에게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일 뿐이며,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 업무 내용보다는 급여와 근무요건, 조직문화 등이 더욱 중요해짐

● ‘N잡러’의 환상과 이면

- N잡러라면 퇴근 후 부수의 창출을 통해 더 많은 노동소득을 만드는 ‘MZ세대’가 떠오름.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N잡러의 비율은 비슷하고, N잡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 비정규직.
- 20대의 경우 2021년 평균 월급이 240만 원. 한 직업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움
- 청년의 노동시간 및 복수 일자리 여부 등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차이 있음. 서울은 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대신 복수 일자리 비율이 높고, 일반적인 일자리에 비해(이거 시간으로 바꿔놓기) 장시간·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음. (2022 청년삶실태조사)

● 노동 경험과 미래 계획

- 정규직 여부, 직종, 임금, 고용의 안정성 등은 청년들의 노동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여부 등을 결정함. 이 요인들의 효과는 학력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정병삼, 2021)
- 노동 경험과 사회경제적 변수(조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청년들의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 냄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만족한다. ... 적성에 맞는 일을 해도 돈을 적게 벌면 그게 무슨 의미냐”
- 국내 자동차 대기업 판매부서 박씨 (25세)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불평등한 청년세대

세대 내 심각한 불평등 1순위 N=1,000

순위	불평등 분야	응답률(%)
1	청년사이 자산 불평등	33.0
2	청년사이 소득 불평등	26.6
3	청년사이 고용 불평등	16.2
4	청년사이 주거 불평등	10.5
5	청년사이 교육 불평등	7.2
6	청년사이 가족형성 불평등	5.9
7	기타(건강, 장학금, 성별)	0.4

친구들이 볼 때 본능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비트코인 몇 번 해서 번만큼의 돈을 절대 획득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고... 2015년부터 한국사회에서 많이 회자됐던 수저 계급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부모님 세대가 거쳐 왔던 첫 직장을 잡고 거기에서 자산을 축적해서 몇 년 내에 집을 사고 이런 식의 **생애 과업을 이행해 나가는 코스 자체가 극단적 도박이 아니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 연구자1)

자산 불평등이 1순위로 나오고 있는 건... 그게 약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2)

어떤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초기 임금도 많은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나 있고 그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각인이 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 3)

주: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0세~39세 청년 대상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2020 - 표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와 불평등>에서 인용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불평등한 청년세대

구성원이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각하는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실종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며 진보와 혁신의 동력이 멈추게 됨

사회 불평등이 고착되면 하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당장 경쟁을 소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면 공정한 과정, 사회 이동성 개선 필요

금융 실천 주체로서의 청년 이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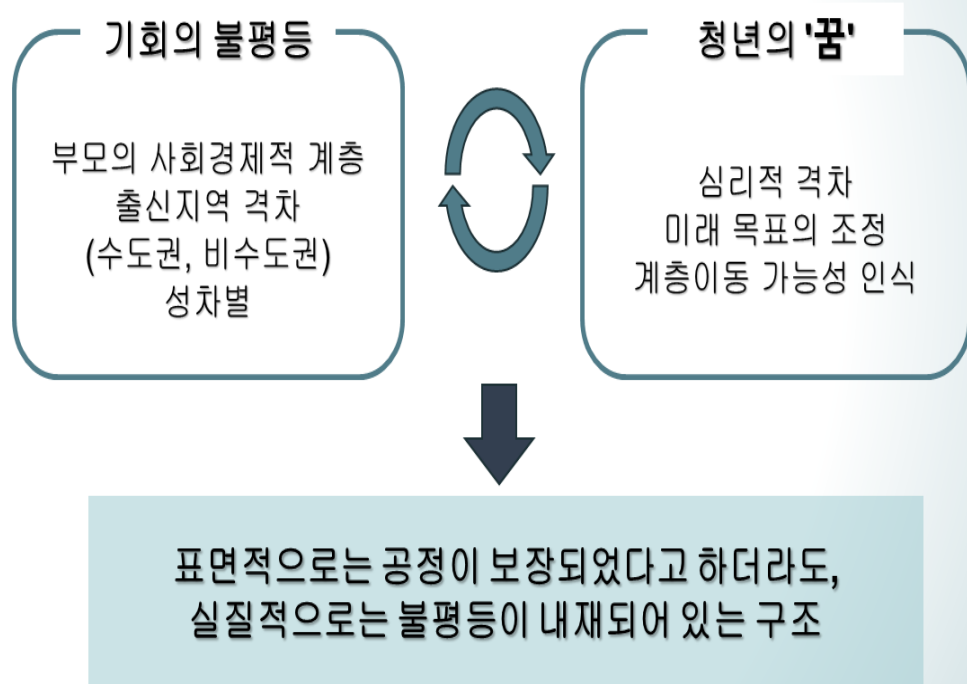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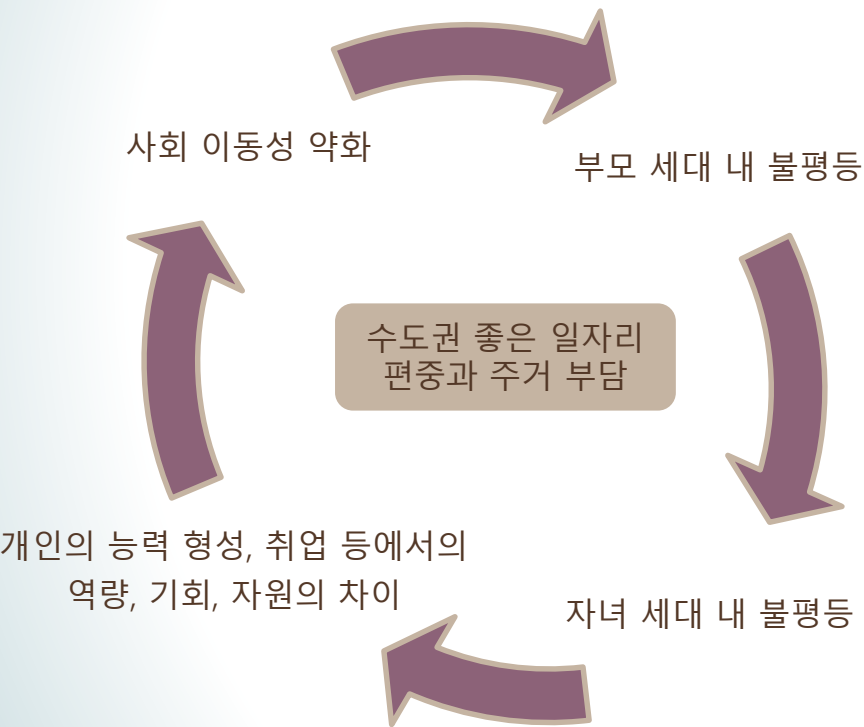


1. 공정성과 세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정성 논의는 해당 시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특히 정의(justice)와 공평(fairness) 문제에 대한 교감 속에서 진행된다. 이는 공정성 개념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제한적인 자원(resources)을 분배하는 방식과 그 결과의 정당성 문제와 연관하여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정의로운 일을 하며 정의로운을 지향하는 품성이나 도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도 공정성 논의가 사회를 어떻게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롤스(Rawls)의 '공평으로서 정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기회 불평등과 가난해진 꿈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불평등한 청년세대

'미래성이 사라지고 있는 미래세대'

'가까운 미래에 갇힌 미래세대'

“청년은 자신의 힘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 이동성의 개선은 세대 간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대 간 공정성의 약화는 세대 내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모 세대 내 불평등에 의한 자녀 세대 내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2021)에서 발췌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이만주 · 오세호 기획
김석호 의 저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공사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의 미래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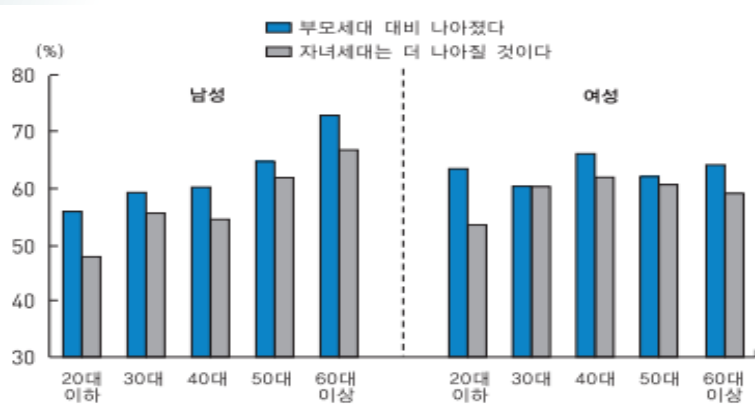
서울은 어떤 미래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성·연령별 생활수준의 현재와 미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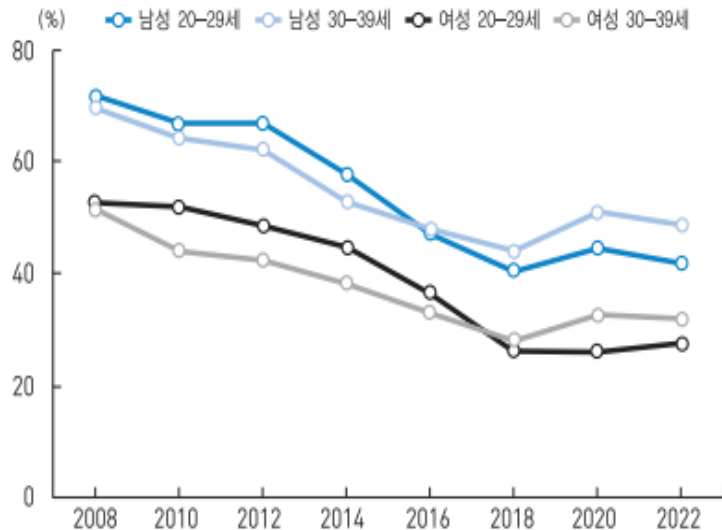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각 '귀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훨씬 혹은 약간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훨씬 혹은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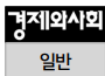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페이션시, 생존주의적 욕망과 능력주의적 믿음의 결합



고시패스의 욕망과 수험의 페이션시(patency)

《고시계》(1980~2018년)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중심으로*

김홍중**·김유하***·김정환****·류연미*****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잡지 《고시계》에 실린 406건의 합격 수기를 자료로 사법시험(司法試驗) 합격을 향한 수험생들의 욕망의 역동을 탐구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집합적 심리에 주목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의 체험 논리(페이션시)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발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수험생들은 '입문 → 유예/금욕/희생 → 응시 → 탈락/합격'의 프로세스를 겪어나가면서, 제도가 부과하는 압력에 적응해 가는 '감수자(patient)'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감수자적 위치에서 수험생들은 최종 합격을 위한 자신들의 심적 능력을 조직해 실천하는데,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생존주의적 욕망과 능력주의적 믿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존주의적 욕망은 합격/도태의 갈림길에서 '합격'을 향한 충동을 지칭하며, 능력주의적 믿음은 이런 생존에의 돌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정성'에의 신뢰를 가리킨다.

'페이션시(patency)'

'수험생으로서의 청년세대'라는 문제의식

활동적인 청년이 '규범'이 되어 '왜 청년이 활동적이지 않은가'를 설명하려 하거나, 혹은 '실제로 청년은 이렇게 활동적이다'를 보여주려 하는 경향. 그러나 페이션시는 청년들의 감수 세계, 감수 속에서 구성되는 힘, 그리고 행위와 감수 사이의 연결에 주목

사법시험은 환상성(공정한 경쟁과 성공의 신화), 물신성(합격자들에게 부여되는 매혹과 위신), 마술성(선택된 자들의 카리스마와 권력, 그리고 힘의 느낌)이라는 다차원적 에너지를 통해 운영되는 일종의 '꿈의 제도'. 이 환상/물신/마술은 단지 고시원이나 법학과에만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인생행로를 개척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청년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 능력을 통한 생존이라는 꿈의 소용돌이는 판타지인 동시에 비전(vision)으로 작용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조건의 격차가 꿈의 격차로

문화와 사회 제24권(2017) 289-321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 김석훈--
- 주유경--
- 상연주----
- 김지애-----
- 김은자-----
- 이상규-----
- 김홍중-----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미래를 꿈꾸는 방식과 연관된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사례이를 활용하여 측정,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이론적 바탕에는 꿈-자본의 개념이 있다.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는 행위자가 미래를 상상하는 힘, 희망의 감정을 품는 힘,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힘, 그리고 난관을 이겨가는 힘으로 구성된 총체적 역학인 꿈-자본을 형성하여 다른 자본들을 향한 동기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세대가 꿈을 이루어 가는 경로와 꿈의 내용, 그리

‘꿈-자본(Dream Capital)’

꿈-자본은 꿈을 꾸고 이를 유지하며 그것의 실현을 향해 나가는 능력의 총체. 사회적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총량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 想像力, 정서적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 - 希望力,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 樂觀力,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 回復彈力性. 상상력, 희망력, 낙관력, 회복탄력성을 통해 개인의 ‘꿈-자본’ 측정을 시도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47 | Number 3 | September 2018, 347-370
DOI 10.21588/dns/2018.47.3.002

Special Issue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SEOKHO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JUNG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KYU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JI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OHJAE GOWEN | HARVARD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in understanding the ways that contemporary youth pursue their dream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rational aspect of “dreaming” or “non-dreaming” by employing two concepts: dream-capital and penetration. In this paper, dream-capital is conceptualized as a seed that facilitates the accumulation of other capitals. It is the total capacity to dream and is composed of four dimensions: imagination,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Penetration is defined as the “cognitive judgment about the (un)realizability of dream.” It refers to the discrepancy that exists between judgment about the capacity, condition and qualification required to fulfill one’s dream and judgment about the extent to which one thinks she is equipped with that capacity, condition and qualification. Penetration consists of four factors: individual traits,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47 | Number 3 | September 2018, 341-346
DOI 10.21588/dns/2018.47.3.001

Special Issue

Introduction: Searching for Uniqueness in Dreams and Futures of the 21st Century Young Generation in Korea*

SEOKHO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 Generation in Korea as a Subject of Sociological Investigation

The sustained low-growth and de-growth that have characterized Korean society right before the 21st century and still continues up to now, have affected youth in their mid-twenties and early thirties with the most dire social conditions, these negative consequences translating into a double blow for these group of young adults who have just started their career paths, and often characterized by financial instability. Generation groups who have shared experiences of historical events or sociopolitical contexts are known to develop common cultural and political values specifically binding to those groups. The term “youth generation” that is being widely used within the Korean academia is not entirely in correct use and seemingly misaligned with previously defined sociological concepts. Although the notion of generation doesn’t boil down to a singular definition, if the concept of Karl Mannheim was utilized—where “generation” is defined as a group who have shared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and social conditions as well as shared likenesses in life courses—a mistake should not be made in equating this generation group to “youth,” who are grouped together in cohorts by birth years (Mannheim 1936). Why then has there been the widespread use of term “youth generation” and without a lot of resistance? The answer is pretty straightforward. The current age group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in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간파(*penetration*)’?

간파: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 보려는 충동. **꿈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수준과 실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 간의 차이를 인식한 행위자가, 실현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 만들어내는 사회심리학적 구성물**

개인의 꿈이 자신의 능력, 노력, 타고난 재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개인은 외부에서 제공한 단서를 유추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해석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따라 꿈을 설정

*the “cognitive judgment
about the (un)realizability of dream.”*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청년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일반화하는 담론은 청년 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을 포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청년’과 같은 고정된 이미지를 설정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조건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싶은 꿈을 위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꿈은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배경 중 어느 하나에만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과 환경 간 관계를 두고 이루어지는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 꿈을 꾸는 과정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선택지 사이에서 그 간극이 최소화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2022. 2) 23권 1호: 107-130

DOI <http://dx.doi.org/10.20997/SR.23.1.4>

107

연구논문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정우연*, 조하영**, 김석호***

청년의 꿈은 '표준화'된 생애주기에서 타협될 수밖에 없던 선택지거나 자본주의적 성공을 위한 무한동력 혹은 모종의 이데올로기로 묘사된다. 이 연구는 청년세대 내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20~34세 청년들이 갖추고 있는 자원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꿈꾸는 미래의 삶, 즉 꿈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2016년 수집한 '한국청년 가치관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청년이 가진 자원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개인의 역량 자원'으로 유형화하고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꿈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내적인 행복을 꿈꾸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은 높지만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삶이라는 꿈을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자원과 역량 자원에 따라 꿈꾸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자원은 특정한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청년, 이질성, 꿈, 꿈의 내용, 꿈꾸는 삶, 자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인의 역량

03 소박한 소망에 가려진 불안과 체념

미래에 대한 전망, 결혼과 출산이라는 꿈

조사연구(2022. 5) 23권 2호: 1-33
DOI <http://dx.doi.org/10.20997/SR.23.2.1>

1

연구논문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김석호*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가 그들의 마음에서 왜 형성되는가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비혼과 출산 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능한 자원의 부족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가진 영향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기존 청년 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자리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꿈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청년의 비혼과 출산 기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분석의 결과, 청년의 비혼과 출산 기피는 일자리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청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자원보다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래에 예상하는 계층 위치와 사회이동 가능성을 통해 봤을 때 현재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판단하는 청년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출산과 결혼을 선택지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비혼이나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 청년, 결혼, 비혼, 출산, 출산 기피,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지원, 현실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전망

의지적 저출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 결여 탓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엄중히 성찰할 필요. 결혼과 이어지는 출산에 대해 논의할 때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 심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미래 전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청년들이 지니는 부정적 미래 전망이 비혼, 저출생과 같은 소위 ‘사회 문제’의 원인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청년들의 연애·결혼·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관적 인식에서도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절망이 만든 은둔과 우울

04 절망이 만든 고립·은둔

고립·은둔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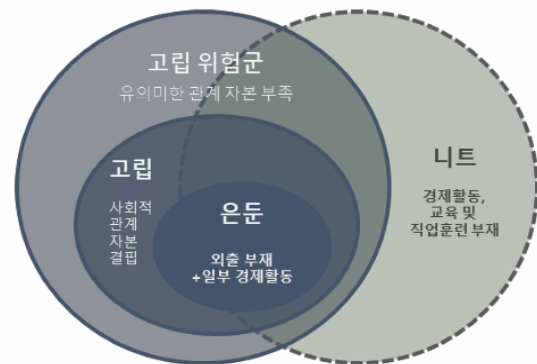
첫째, 청년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에 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둘째, 지원대상으로서의 고립·은둔

- **고립 청년**은 ①타인과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②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하지만, ③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 **은둔 청년**은 ①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 가두면서 ②사회 활동이 거의 없이 단절된 청년
- 단,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트(NEET)와 구별

구분	경제활동 지표	사회관계 지표	외출 지표
니트청년	○ (경제활동 없음)	X (미고려)	X (미고려)
고립청년	X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청년	X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결핍)	○ (외출 없음)



04 절망이 만든 고립·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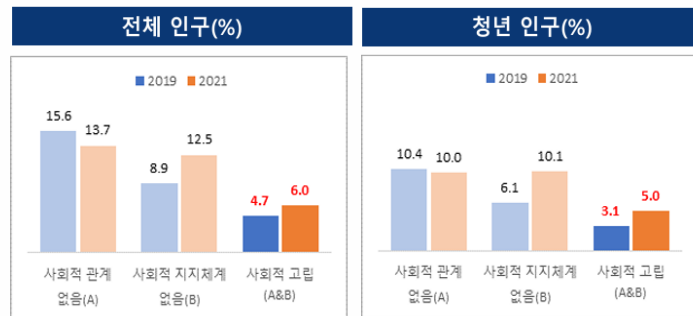
고립·은둔의 개념

고립 청년 2019년 34만 명(3.1%) → 2021년 54만 명(5.0%)

-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부재하며(A. 사회적 관계 없음), 생활·경제,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도 부재한(B.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자로 정의
- 원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 및 인구총조사 (13세 이상 전체 약 36,000명)

은둔 청년 2022년 24만 4천 명(2.4%)

- 외출도 하지 않으며 방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 자 중 외출하지 않는 이유가 장애, 임신, 출산이 아닌 경우
- 원자료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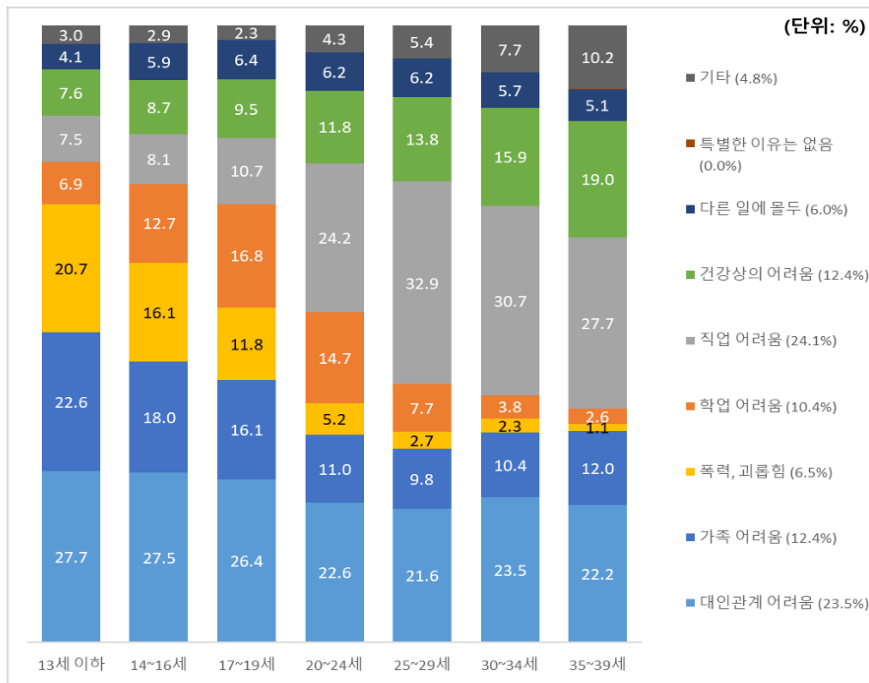
자료: 김성아 외,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 절망이 만든 고립·은둔

고립·은둔의 원인

▶ (시작 연령별 고립·은둔 이유) 취업 어려움(24.1%) > 대인관계 어려움(23.5%) > 가족 / 건강 어려움 (12.4%)

- 청소년기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겪고 사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하며 사회와 인연을 끊고 집에 혼자 있던 적이 많습니다. 올바른 대인관계 교육과 훈련이 있으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응답자 A)
- 사회적인 교류를 통한 자신감, 자존감, 정서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립 은둔하게 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에는 이질감, 두려움 등 심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 은둔 청년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회복을 돕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B)
- 집에서만 있다 보니 점점 외부로 나가 활동하는 게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단체 활동은 하기 싫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자 C)
- 당장 무리한 활동보다는 사회에 나가기 전 예방주사 같은 연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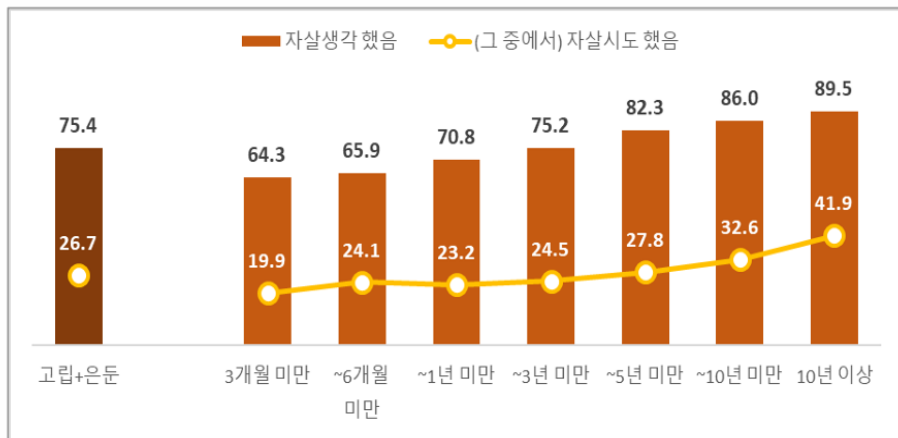
04 절망이 만든 고립·은둔

방치할 수 없는 고립·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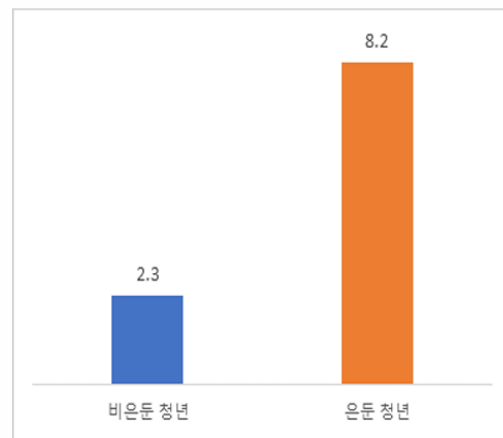
▶ (정신건강) 자살생각(=6,359/8,436명) & 시도(=1,698/6,356명) 多, 특히 고립·은둔 기간 길어질수록 심각

• 생명윤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감한 문항은 무응답 허용하여 응답자 숫자 차이 有

자살생각 (그 중에서 자살시도) (%)



『청년 삶 실태조사』에 의한 자살생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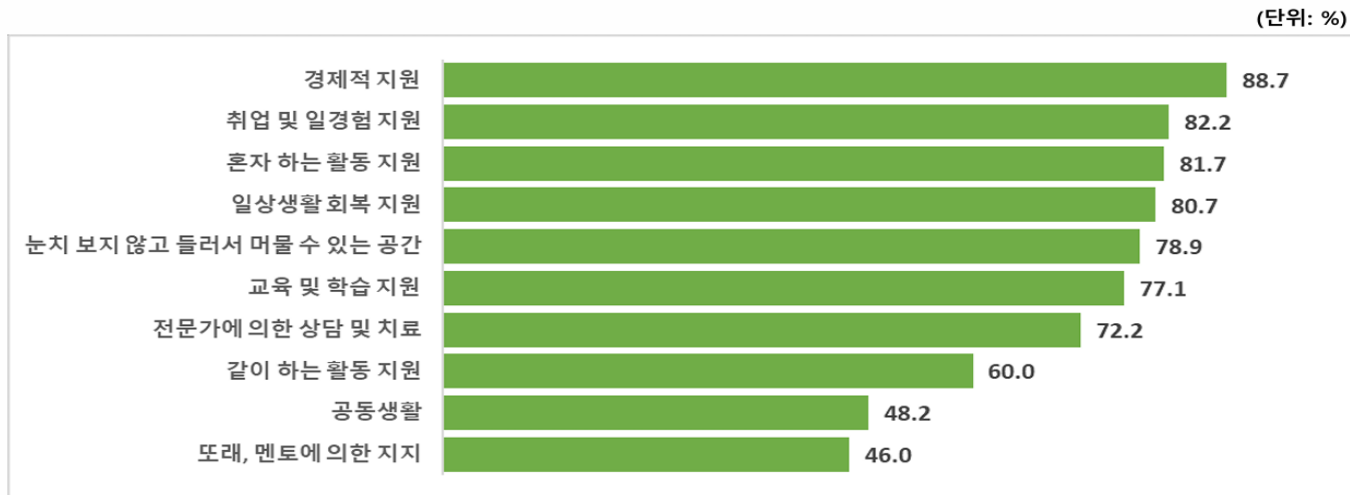
04 절망이 만든 고립·은둔

고립·은둔의 사회적 대응 시급성

● (필요한 도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응답자 K)”

· 경제적 지원 > 취업 및 일경험 지원 > 혼자 하는 활동 지원 > 일상생활 회복 지원..

↳ 경제적 지원은 주로 회복과 사회복귀를 시도하기 위한 종잣돈(e.g., 교통비, 밥값, 커피값, 옷,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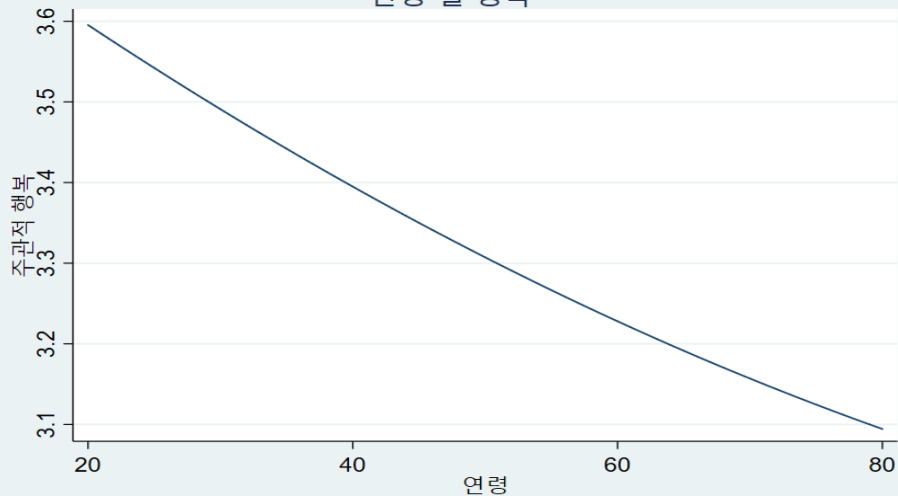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05 자유로운 선택들이 만드는 다양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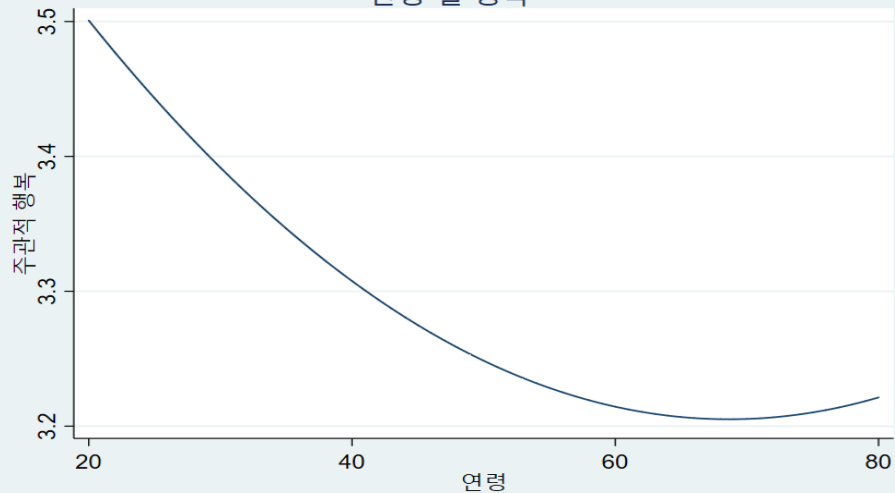
한국인의 행복 곡선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연령 별 행복



연령과 행복 간 관계 (통제변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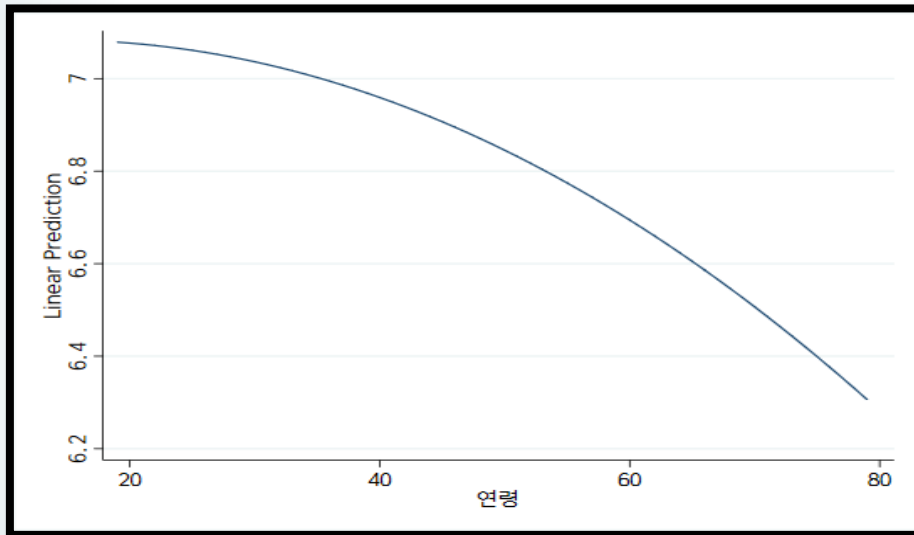
연령 별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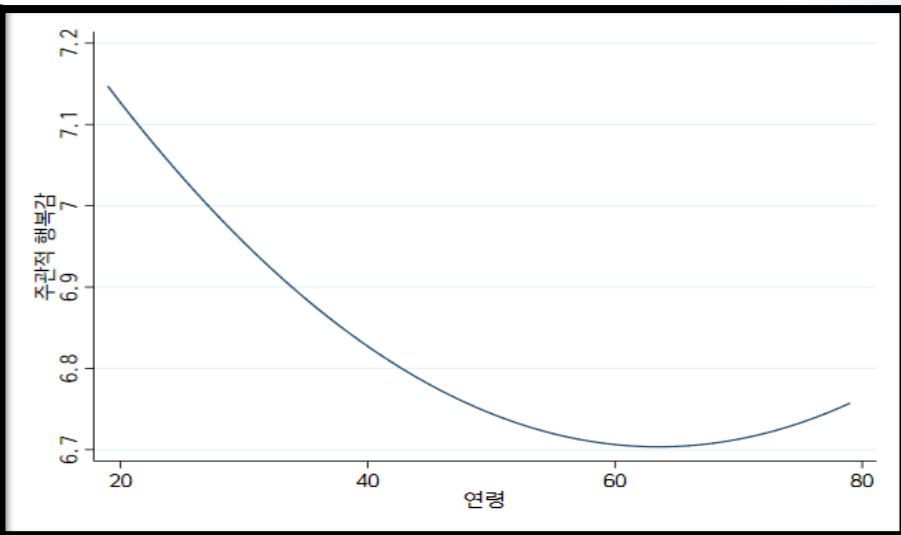
연령과 행복 간 관계 (통제변수 있음: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역, 소득, 취업, 교육, 생활수준 등)

05 자유로운 선택들이 만드는 다양성으로

한국인의 행복 곡선 (문화부 가치관조사 2019)



연령과 행복 간 관계 (통제변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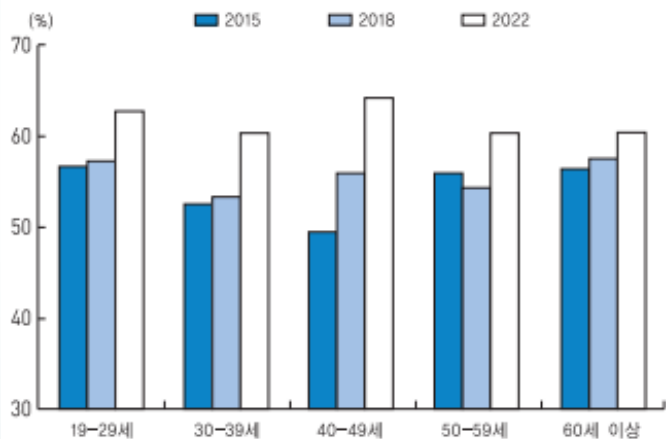


연령과 행복 간 관계 (통제변수 있음: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역, 소득, 취업, 교육, 생활수준 등)

05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청년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인식과 행복

삶을 결정하는 자유 인식 비율, 2015,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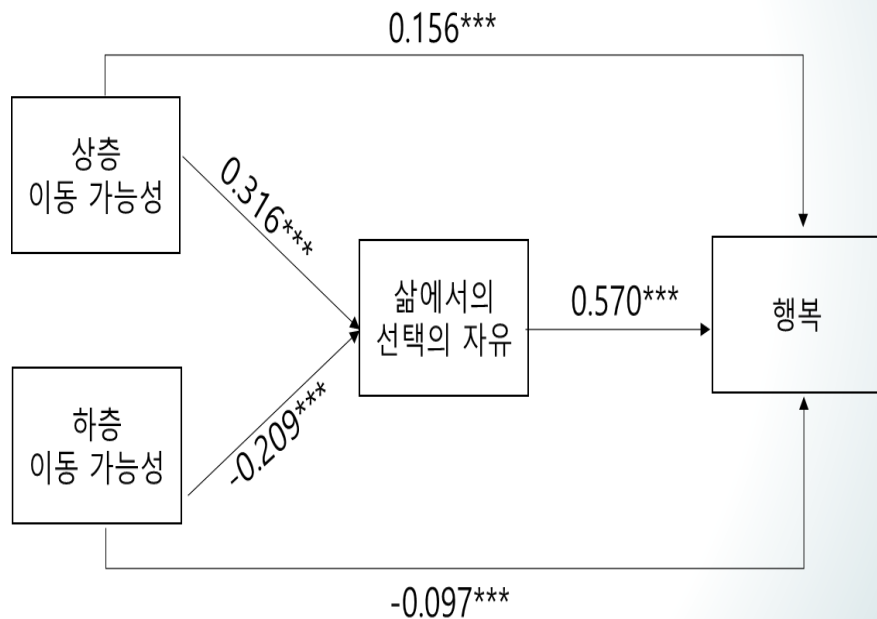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냄.

2) 2015년, 2018년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삶의 선택 자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김석호. 2022. 한국 청년의 삶, 마음, 행복에서 인용

05 자유로운 선택들이 만드는 다양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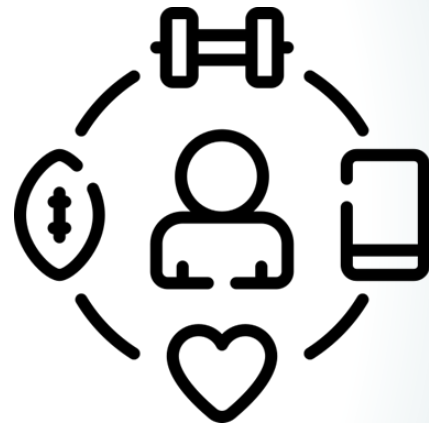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이란?

- 개인의 가치, 취향, 신념, 욕구 등이 반영된 삶의 양식 전반을 이르는 개념.
- 청년의 노동, 주거, 교육, 여가, 문화 등의 생활 전반을 포착하여 설명함.
- 즉, 청년들이 삶의 여러 영역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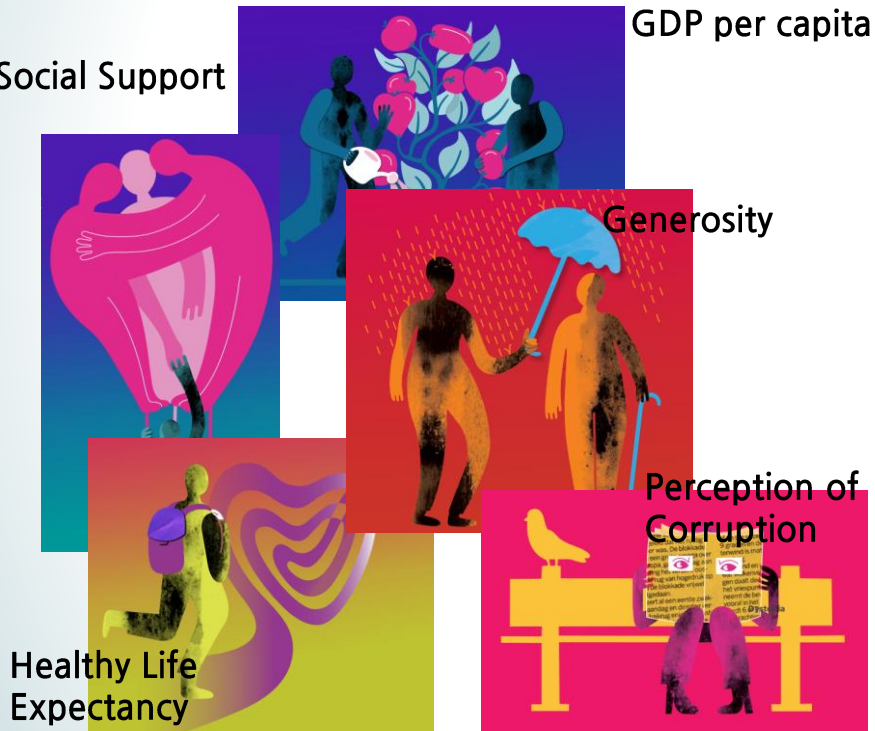
-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참고해가며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해감.
- 청년의 지역 유출 및 수도권 밀집 현상 역시도,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닌 그와 연계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청년들이 자신의 조건적 제약에 맞서 나름대로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낫설다고 하여 배제하기보다는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05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자유성(Freedom to Make Life Choices)이란?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UN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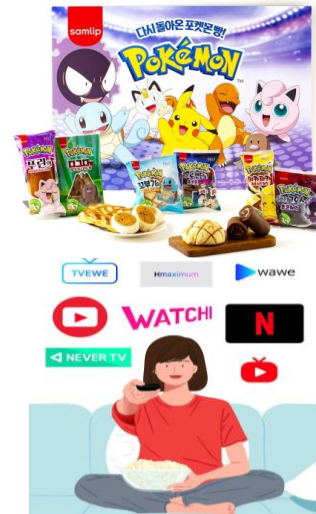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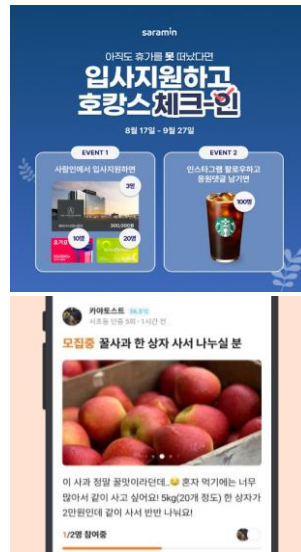
소득, 건강, 사회적 지지, 관용, 사회의 부패 인식, **자유성**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자유롭다는 인식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

05 자유로운 선택들이 만드는 다양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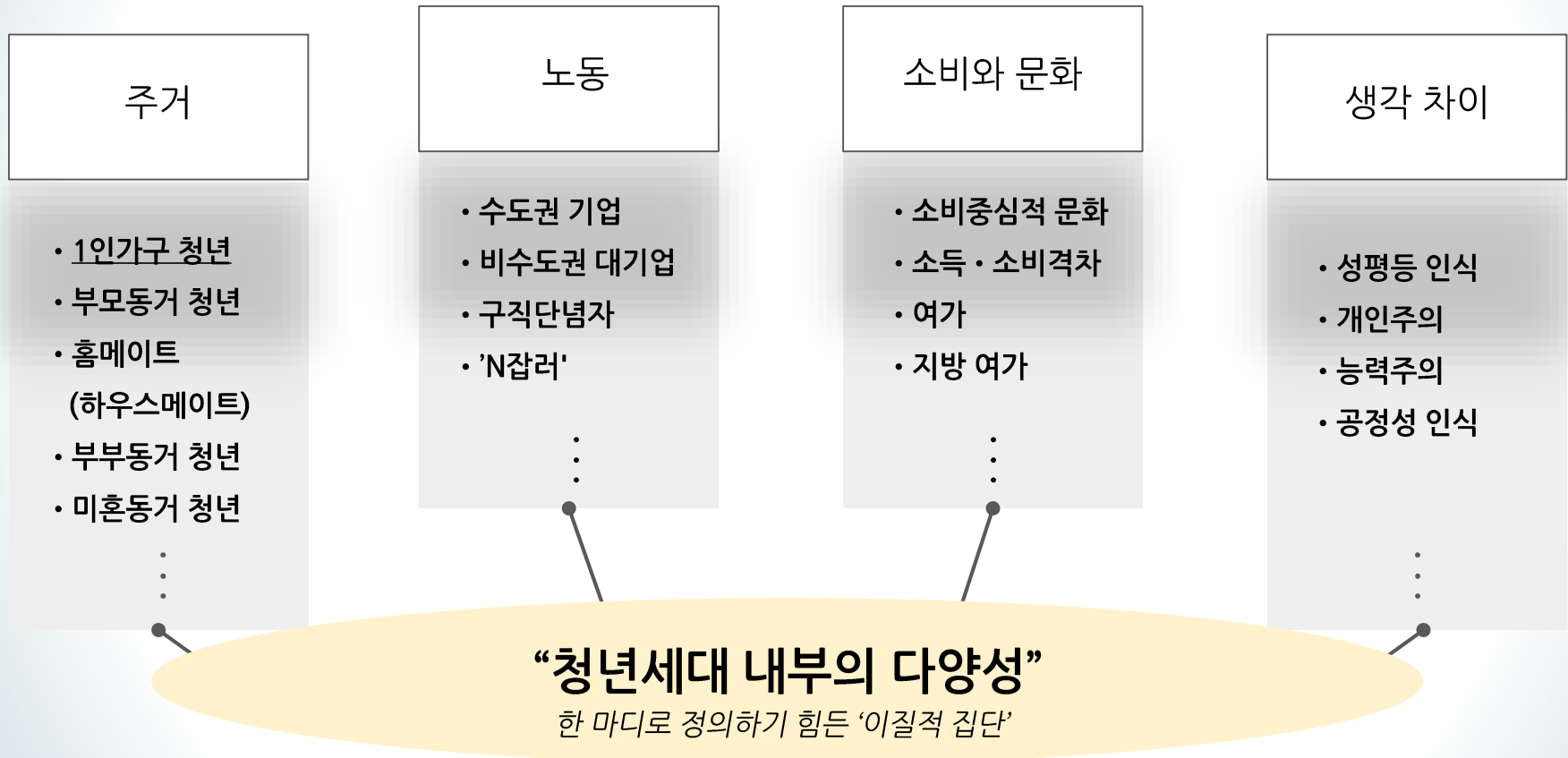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간 '격차' 가 아닌 '차이'가 될 수 있도록

- 청년들을 둘러싼 이질적 조건은 청년들의 이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
- 따라서, 물질적·심리적·관계적 '격차'가 내재된 사회경제적 조건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도 '격차'를 발생
-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바로 **"자율성 인식"**.



청년들이 자신의 자율성 인식에 따라 미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격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삶의 조건의 제약을 줄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가는 다양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로!**



청년 정책의 특징

- 2019년 제정으로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 법에 따르면 청년은 19~34세
- 청년 정책은 주로 1) 일자리 2) 교육·훈련 3) 주거 4) 참여 5) 복지·건강 등으로 나뉨. 그중에서 사업의 수와 예산 기준으로 일자리와 주거에 관한 정책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외에 특정한 타겟이 있는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은 주로 미취업 청년 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일자리 문제를 기준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
-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 정책, 경기와 인천은 복지, 금융, 건강,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일자리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
- 지역의 청년 유출 원인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은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음. 수도권에서 최근 주거와 자산 형성에 대한 고려 증가 경향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사항

- 일자리 사업의 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음. 교육 후 일자리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 다수
-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적 접근: 일자리 진입 외 노동 환경 문제 해결 필요**
 - ✓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는 문제 뿐만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과 갑질 근절 등 노동자/구직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근로환경 및 취업문화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
 - ✓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세대가 노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 =>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 여건 등 노동 전반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할 필요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사항

- 다양한 노동 경로에 대한 인정 필요: 단일기회구조모델에서 기회다원주의 모델로의 이행 필요
 - ✓ ‘교육-고용,’ ‘고용-실업’ 외에 표준적이지 않은 이행으로서 ‘고용-교육’ 혹은 ‘고용-가사’ 등 다양한 삶의 궤적이 존재
 - ✓ 그러나 청년 정책은 교육 후 혹은 실업에서 취업으로 돌아가는 표준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삼음. 모든 청년들이 정상으로 전제된 경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정책을 입안.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이행 궤적을 가지고 일하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절실

06 나가며: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정책 개선 사항

- 거주 비용 (전월세) 지원 혹은 주택 지원 (청년주택 등)이 있는데, 주로 전반적인 청년 모두에게 지원하거나 신혼부부 지원이 많음
- 청년들이 1인 가구 형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1인 가구를 타겟팅하는 주거 지원이 늘어나야 함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 설계 필요
-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의 삶의 질 모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등도 함께 고려해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적 주체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모든 단위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조직해야 하며, 일반 청년의 삶의 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
-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 각 문제의 피해자로 보는 프레임을 넘어서, 청년 지원이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

정부 정책 구성과 평가의 문제

- 청년 정책에 대한 기초가 중앙정부에 존재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이에 따라서 각자의 청년 정책사업을 구성하고 이행하다 보니, 정부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 부족으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경쟁하기까지 하는 문제 발생
- 청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된, 그리고 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중요
- 양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양적인 논의보다는, 청년정책의 목표에 맞는 질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
- 이행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는가? 그리고 청년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06 나가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청년?

청년 담론 뼈뼋하게 바라보기

- 미래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을'의 입장에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모색하거나, 과도기 노동을 수행하거나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있는 취약집단으로 그려짐
- 한국 사회 담론장에서 청년을 취약집단으로 다루는 경향의 문제점
 - ✓ 청년의 미성숙에 대한 전제: 청년의 취약성이 집단의 특수하고 불완전한 위치라는 착각의 산물. 하지만 청년은 미성숙한 존재도 아니며 청년의 취약성은 다른 모든 세대에서도 존재하는 문제. 불평등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이 세대에게 투영하고 있을 가능성
 - ✓ 집합적 취약성의 오류: 청년의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 해법에 있어서 편한 길을 찾았을 가능성.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 행위, 가치, 태도에 있어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청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안 제시에 도움

오피니언 > 동아광장

청년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동아광장/김석호]

아이들을 노동력과 소비자로만 보는 시각
 인구정책 시장에서 원인 찾으면 성공 못해
 결혼-출산이 미혼 청년들의 희망이 돼야
 수도권 뛰어넘는 전체 청년 대상 정책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연 40만 명이 넘는 출생 건수는 2020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27만5815명을 기록하며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낮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발생했다. 인구 감소의 이유와 파국에 대한 우려는 모든 이가 공감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약 200조 원이 넘는 인구정책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 온 인구 감소의 의미, 원인 그리고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접근법은 다 실패해 왔고 실패하고 있으니, 계속 실패할까 걱정되니까.



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구학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담론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이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줄어들면 성장엔진을 돌릴 수 없어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된다. 성장 지체와 경제 활력의 감소는 노인 부양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이다. 동의한다. 다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력과 소비자로만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한 시각으로 인한 폐착은 없었던 것일까?

감사합니다.